

# “벤처기업 인증받은 카센터… 친환경기업이 목표”

## 도전! 스타트UP

새천년카

“미국 실리콘밸리에선 계라지(차고)에서 탄생한 창업 신화가 많은데 우리하고 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이 카센터이니 일단 기본은 갖춰진 셈입니다.(웃음)”

카센터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출발은 카센터에서 했지만 목표하고 있는 종착점은 환경기업이다.

대전 가양동에 자리잡고 있는 새천년카 김선호 대표. 김 대표는 2014년부터 자동차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카센터 새천년카를 운영하고 있다.

김 대표는 간절히 바라던 벤처기업 인증서를 지난 5월 중순께 받아들었다. 이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출발점에 선 것이다.

“자동차 정비 과정에서 매연, 폐오일 등 수 많은 환경오염물질이 나온다. 일부 카센터들이 매연을 공기중으로 빼버리거나 폐오일을 무심코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물질은 인체에 매우 해롭다. 환경 파괴의 주범이기도 하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정화해 깨끗한 공기를 내보내고, 또 매연 상태만으로 차량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포부다. 전기집진기와 필터가 결합한 ‘매연포집장치’를 올해 안에 출시할 계획이다.”

김 대표와 새천년카는 대전지역을 넘어 이미 전국에서 제법 알려진 정비업



위해 서울도 오고갔다. 그랬더니 한 달에 약 500만원 정도이던 매출이 10배 가까이 뛰었다”면서 “픽업딜리버리도 시작했다. 엔지니어가 고객에게 달려가 차량을 가져오고 수리를 한 뒤 이를 다시 고객에게 가져다주는 서비스다. 고객에겐 차 수리 기간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빌려준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고객이 편리할 것 같은 ‘픽업딜리버리’엔 다른 의미가 숨어있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소비자를 위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엔지니어들을 위한 것이다. 수리할 차가 한꺼번에 몰려들면 실수를 하고 정비 불량이 생길 수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픽업딜리버리를 하면 시간 배분을 해 보다 안전하게 차를 고칠 수 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니 ‘깊은 뜻’이 이해가 갔다.

김 대표는 ‘팜스(PAMS·개인차량관리시스템)’라는 개인맞춤형 차량관리 서비스도 도입했다. 이는 아버지의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소비자가 새 차를 구매할 때 명의이전을 하기 전 차량이 문제 없는지 ‘신차검수’를 돋고, 운행 중 자동차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중고차구매동행서비스를 통해 좀더 완벽한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돕거나 폐차 대행 등을 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관리하는 고객 수만 2만명 가량에 달한다.

한 번 인연을 맺은 고객에게는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로 주고, 카센터 2층에

마련된 고객쉼터를 개방해 누구나 사랑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덤이다. 일반 회사들처럼 매출액의 일정액을 항상 마케팅비용으로 쓰기로 마음 먹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2년전부터 B2B 고객 공략도 시작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 이들의 차량 수리를 전담하는 것이다. 수익이 생기면 일부를 장학금이나 복지기금으로 기관들에게 다시 기부한다.”

어느새 몇몇 기관은 단골이 됐고, 빠르게 입소문이 퍼져 단골이 또 다른 고객을 소개시켜주기도 하는 등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새천년카는 고객이 뽑은 친절직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엔 카센터에서 기르고 있는 애완견도 투표 대상이다.

“손님이 골든리트리버를 친절직원으로 뽑아 강아지가 직원들을 제치고 1등을 했다면 간식을 사주는 식이다(웃음). 이런 아이디어는 벤처업계 선구배들로부터 배운 것이다.”

카센터에서 벤처기업으로 힘찬 도약을 꿈꾸고 있는 김 대표와 새천년카. 그는 향후 아버지의 정비소까지 한 곳에 모아 1층엔 자동차 종합 서비스센터를 두고, 2층엔 정비 교육장, 그리고 3층엔 제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센터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기름밥을 먹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시몬스 침대 인천검단점 내부 모습.

## 시몬스침대 인천검단점 대리점 오픈

구매 금액따라 침구세트 등 증정

시몬스는 인천시 당하동에 시몬스침대 인천검단점을 새롭게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지하철 2호선 독정역 인근에 있는 시몬스침대 인천검단점은 삼성디지털프라자, 전자랜드 및 롯데하이마트 등 대형가전매장이 인접해 있는 중심 상권에 위치해 있다. 검단신도시, 청라 국제도시, 송도국제도시, 부천, 김포 지역에서 오가기가 가깝다.

시몬스침대 인천검단점에선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인 ‘뷰티레스트’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디자인의 프레임,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케노사’의 다양한 퍼니처 및 베딩을 선보인다.

인천검단점 오픈을 기념해 해당 매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시몬스가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케노사의 40만원 상당의 호텔 침구 세트 또는

포켓스프링 베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몬스침대는 본격적인 웨딩 시즌을 맞아 전국 시몬스 매장에서 제품 구매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웨딩 프로모션’도 펼치고 있다.

대리점에서는 ‘이터너티’ ‘비아테’ ‘바나’ 구매 시 10%, ‘바이브’ ‘자스민’ ‘레이븐’ 구매 시 5%의 할인 혜택은 준다. 또 침대 프레임 전 제품은 매트리스와 함께 구매하면 10% 할인되며, 그 외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케노사’의 침구류, 퍼니처 등도 10% 할인해준다.

시몬스침대는 전국 공식 대리점 및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36개월 장기 카드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인 ‘시몬스페이’도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12개월, 24개월, 36개월 중에서 선택해 무이자로 부담 없이 프리미엄 침대를 구매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중장년 기술창업 우대보증 최대 15억

기보, 올 하반기 1000억원 마련  
향후 3년간 매년 2천억원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에 나섰다.

기보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층의 자영업 쏠림 현상을 막고, 기술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중장년 특화 보증 프로그램인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은 대표자가 ▲만 40세 이상 ▲고급기술자 ▲혁신성장산업 분야 창업 기업인 경우 기술경력과 창업유형에 따라 최대 15억 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특히, 중장년 기술경력자와 만 39세

이하 청년이 한 팀을 이뤄 공동 창업한 ‘세대융합형 창업팀’에 대해선 보증료와 보증한도 등을 추가 우대해준다. 기보는 올해 하반기 10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매년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창업진흥원이 내놓은 ‘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의 창업업종은 도소매(26.5%), 숙박음식업(25.1%) 등에 절반 가량이 집중돼 있는 등 기술창업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고

산업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중장년이 대거 시장으로 쏟아져나고 있지만 이들이 치킨집 등 소위 ‘생계형 창업’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기보 관계자는 “대표자의 숙련도가 높을수록 생존율, 성장성 등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40·50대 중장년층은 숙련도와는 무관한 자영업 시장으로 뛰어들면서 이들이 축적한 산업 현장의 경험과 기술, 노하우가 사장되고 있다”면서 “중장년 기술경력자가 축적한 고난도 기술과 노하우가 기술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로 선보인 창업보증 상품을 통해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지원규모를 계속 늘려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제2벤처 붐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공영쇼핑, 오늘부터 ‘개국 초특가전’

개국 4주년 기념 11개 상품 할인

공영쇼핑이 개국 4주년을 맞아 일주일간 다양한 이벤트를 연다.

공영쇼핑은 8일부터 일주일간 ‘개국 초특가전’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영쇼핑의 11개 인기상품을 매일 오전 10시 40분, 두 차례씩 총 14개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관련 제품

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 중소기업 상품으로는 일명 ‘국민 에어프라이어’라고 불리는 ‘5.8L 키친아트 에어프라이어’를 5만9900원에 판매한다.

국내 기술력으로 생산된 UHD TV ‘이노스 TV’의 경우 55형이 42만9000원에 선보인다. ‘상생협력 방송 지원사업’으로 지난 6월 론칭한 ‘이노스TV’는

첫 방송에서 취급 달성을 190%를 기록하며 일반 상품으로 전환됐다.

이밖에도 코라코르 데카운코트(2만 9900원), 까사메르 침구세트(2만 9900원 /슈퍼싱글 기준) 등 다양한 상품을 내놓는다.

국내산 농축수산물로는 공영쇼핑 김치류 재구매율 1위인 ‘도미솔 김치’를 기준보다 2000원 쌍 3만 8900원에, 단일 품종의 상등급으로 높은 품질을 자랑하는 ‘풍광수토 신동진쌀 20kg’은 5만 900원에 각각 만나볼 수 있다.

/김승호 기자